
제9회 삶의 질 컨퍼런스 참가 결과 보고

●● 목 차 ●●

1. 출 장 개 요	1
2. 컨퍼런스 주요 내용	3
3. OECD 협의사항	19
4. 평가 및 시사점	21

1

출장 개요

1.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9회 삶의 질 컨퍼런스
(IX International Society of Quality of Life Studies Conference)
- 회의 목적 : 사회 발전의 측정 방법 및 목표 논의
- 회의 기간 및 장소 : 2009.7.19.(일)~23.(목), 이탈리아 피렌체
- 출장 수행 내용
 - 삶의 질 및 사회 발전 측정 관련 국제적 동향 점검
 - 제3차 OECD 세계포럼 홍보
 - OECD와 준비상황 협의
 - OECD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한 세계은행 지원사업 협의
- 출장자 : 국제협력담당관실 성기도사무관
총괄기획과 하태원사무관, 최유미주무관

2. 회의 의제

Regular sessions

- 지역별(유럽, 중앙&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삶의 질
- 계층별(가난한 사람들, 이주민, 피난민, 소수민족, 아이들, 중장년층, 장애인들) 삶의 질

- 삶의 질과 관련성(경제력과 삶의 질, 성별과 삶의 질, 직업 및 일과 삶의 질, 안전과 삶의 질, 여가와 삶의 질 등)
- 웰빙(정신적 웰빙, 가족 웰빙, 관계 웰빙, 소비 웰빙, 건강 웰빙, 환경 웰빙, 예술 및 문화 웰빙, 지역사회의 웰빙, 국제적 웰빙 지수)
- 삶의 질 측정(지구행복지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질적 방법, 삶의 질 차이를 측정하는 객관적·주관적 접근, 통합된 방법을 통한 삶의 질 측정)

□ Symposia

- 경험적인 사회·경제 연구를 위한 자료 기반 강화 방안
- 캐나다인의 웰빙 지수
- 현대 건강 치료 결과로서의 삶의 질
-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특별한 방법
- 경제 성장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가? 이스터린 역설의 재평가
- 확장된 국민계정과 지구행복지수
- 장애인의 삶 및 처우의 질

□ Plenary sessions

- 이탈리아 삶의 질의 측정 및 이해
- 어린이들의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 삶의 질과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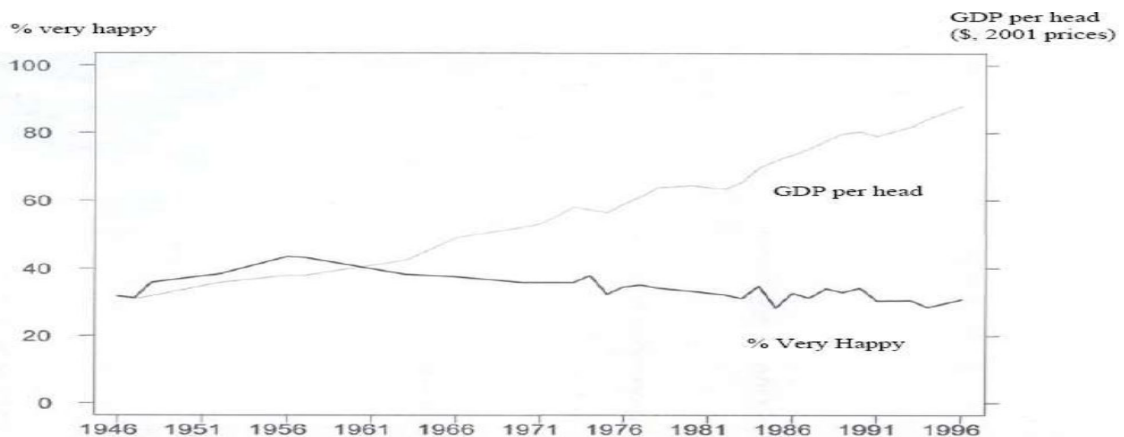
2

컨퍼런스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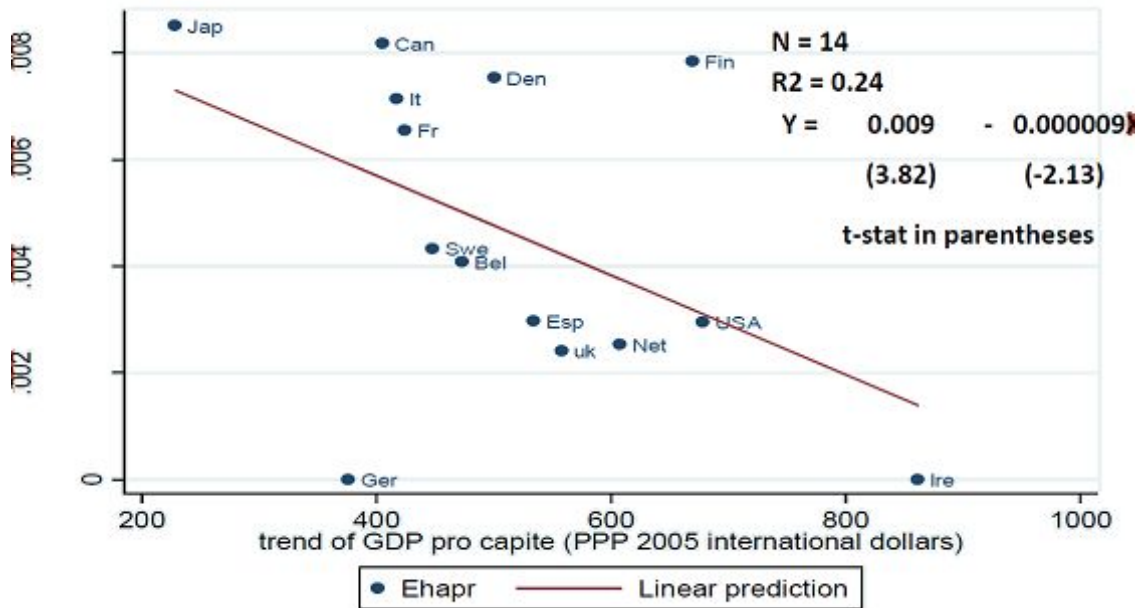
1. 소득과 행복의 관계 (Stefano Bartolini, 시에나대 교수)

- 미국 경제학자인 **Easterlin**이 1974년에 발표한 바와 같이, 개인의 행복은 수입에 비례하지 않음. 즉, 돈이 자동적으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음. (*이스털린의 역설, Easterlin Paradox)
- GDP위주 성장 지상주의의 한계
 - 1980~2000년 미국은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연평균 2.0%)
 - 작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지난 15년간 미국 가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가계부채를 늘려온 결과임
 -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함.
 -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서 소비 폭식증을 유발한 원인은 타인과의 관계 및 관계재로서의 사회자본의 감소, 그리고 나홀로 소비(buying alone) 확대경향에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그림 1> 미국의 1인당 GDP와 행복지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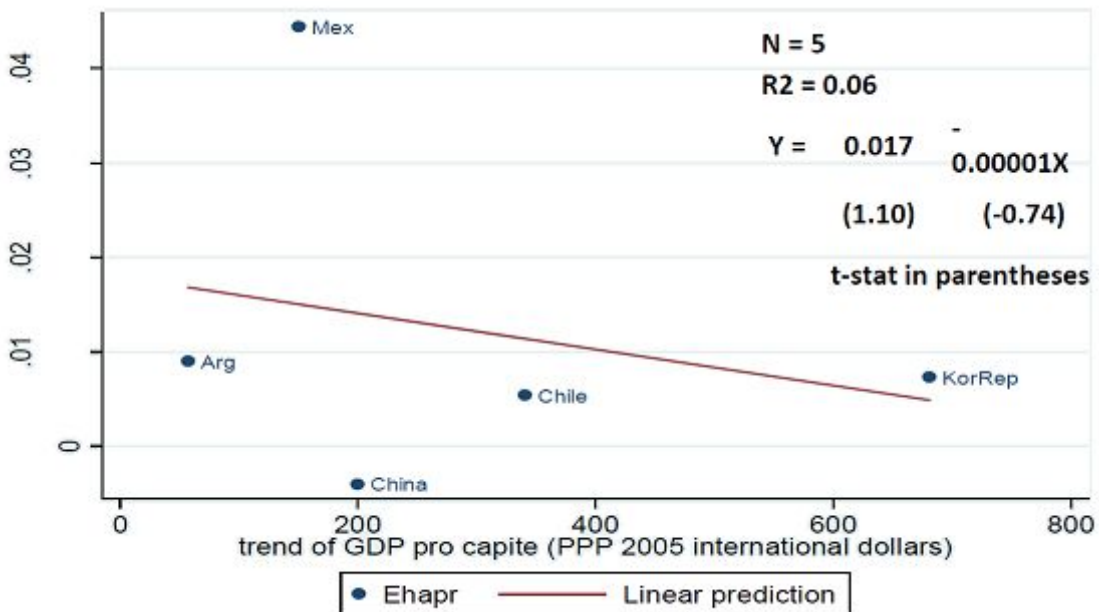


<그림 2> 선진국의 행복도와 GDP 상관관계



※ 선진국 14개국의 2005년 구매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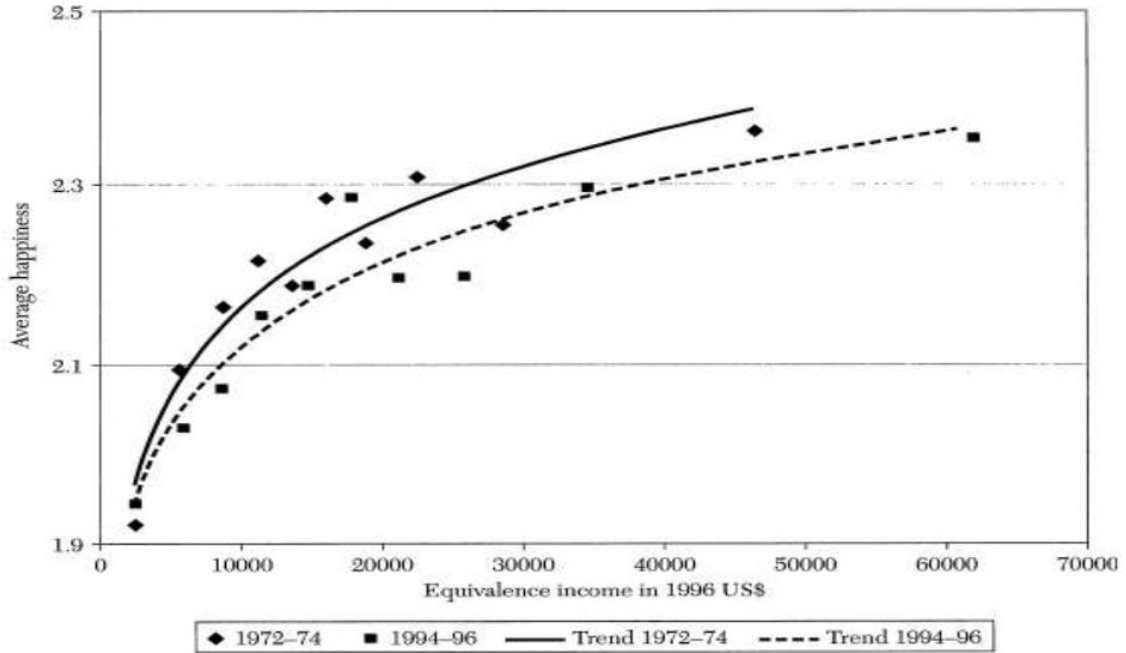
<그림 3> 개도국의 행복도와 GDP 상관관계



※ 개도국 5개국의 2005년 구매력 기준

-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행복도가 수입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강한 영향을 받음

<그림 4> 수입(income)과 행복도(happiness)의 관계



- 개도국을 졸업한 국가는 행복도 증진을 위해 성장 대신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
- 관계재(relational goods)의 일종인 사회자본의 증대는 행복도 증진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2.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Saamah Abdallah, 신경제재단)

□ 지구행복지수는 인류 진보의 측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 특히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적 요소인 생태 발자국을 포함하여 다른 지수와 차별성을 강조

□ 행복지수(HPI) 계산법

- 1단계 : 행복지수 계산

$$\text{행복지수(HPI)} = \frac{\text{행복수명(Happy Life Years)}}{\text{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 행복수명(48년) = 기대수명(60세) × 삶의 만족도(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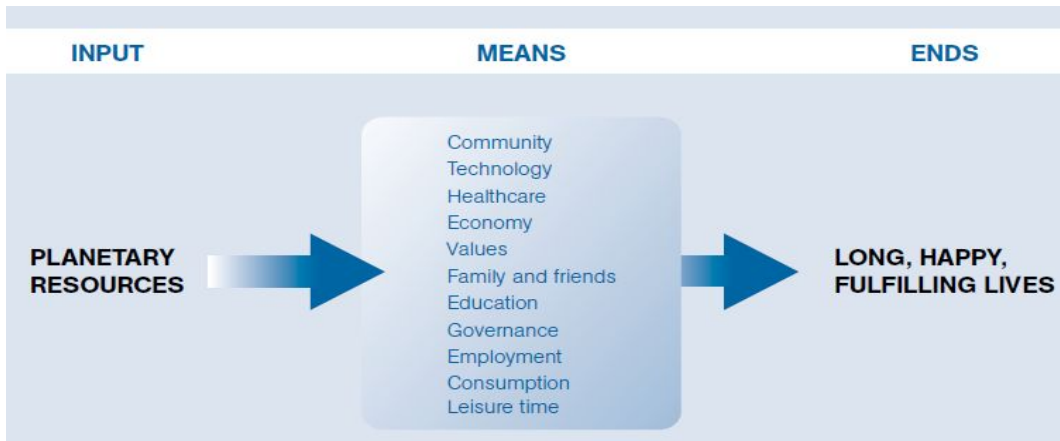
- 2단계 :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생태발자국」의 교통신호등 분류

	Blood Red	Red	Amber	Green
Life expectancy		< 60 years	60 – 75 years	> 75 years
Life satisfaction		< 5.5	5.5 – 7.0	> 7.0
Ecological footprint	> 4 planets	2 – 4 planets	1 – 2 planets	< 1 pl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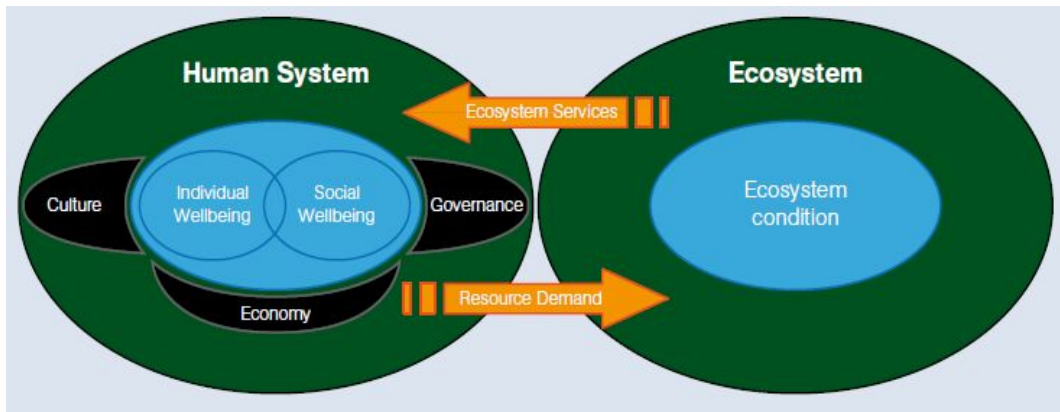
- 3단계 :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생태발자국」 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국가의 행복수준을 색으로 표시

Blood Red	Red	Amber	Yellow	light Green	Dark Green
2 poor, or 'Blood Red' Footprint	Any with 1 poor	3 middling	1 good 2 middling	2 good 1 middling	All 3 good

<그림 4> 인류사회의 자원투입→수단→ 목표달성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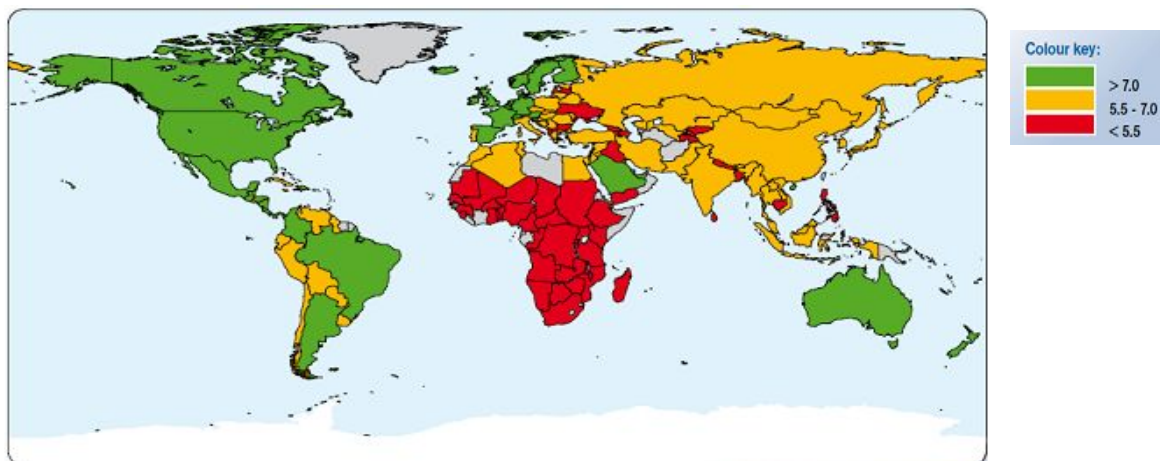


<그림 5> OECD의 사회진보 기본틀(OECD Framework for the progress of societies)



※ 주관적 웰빙은 사회전체의 웰빙과 연계되어 있으며 인류사회는 생태계와 불가분의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

<그림 6> 삶의 만족도 분포



※ 삶의 만족도는 북미, 중남미, 유럽 등이 높게 나타나고 아프리카지역이 열악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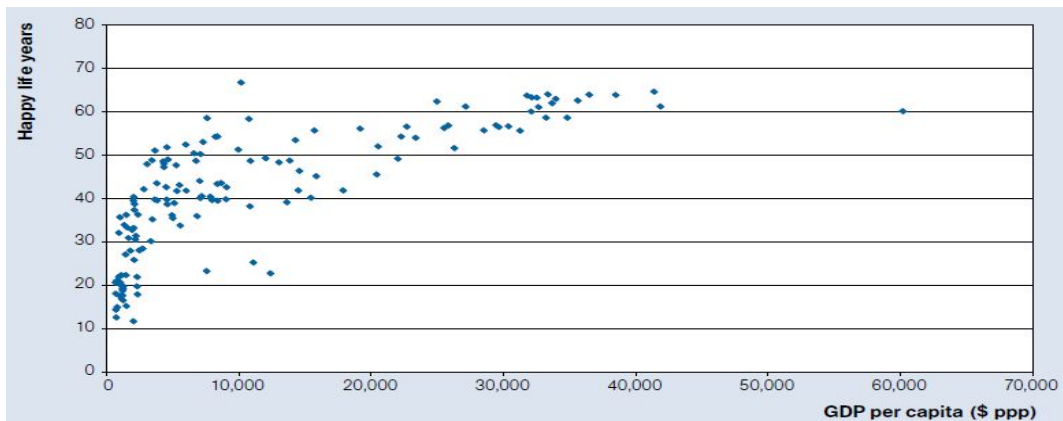
□ GDP와 행복수명(Happy Life Years)의 관계

○ GDP 1만 불까지는 GDP와 행복수명이 밀접하게 비례하나 소득 증가에 따른 그 비례정도가 약화됨

- 행복수명 1위인 코스타리카의 GDP는 미국의 1/4에 불과
- 행복수명 상위 35개국 중 5개국이 남미에 위치
- 태국, 베트남, 중국의 행복수명이 포르투갈보다 높음

※ 예시) 행복수명(48년) = 기대수명(60세) × 삶의 만족도(0.8)

<그림 7> GDP와 행복수명의 관계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 지수

○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등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로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

(1996년 캐나다 경제학자 마티스 웨커네이겔과 윌리엄 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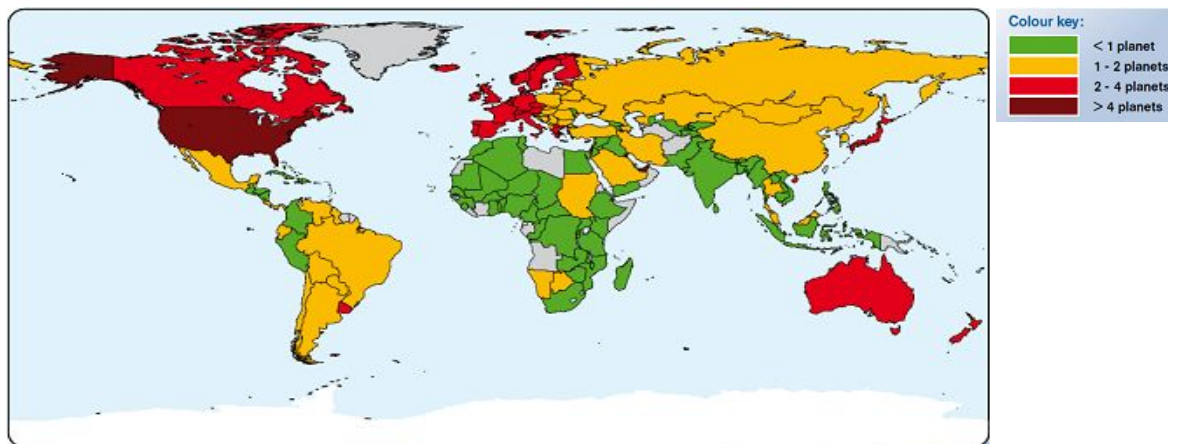
○ 선진국(세계인구 20%)이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음

- 고소득 국가의 평균지수 6.4gha(글로벌헥타르)
- 중간소득 국가 2.2gha, 저소득 국가 1.0gha
- 세계 평균지수 2.7gha, 한국 3.7gha

○ 해결책

- 성장 일변도의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작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생태주의 운동 전개 필요
- 환경세,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반독점법 시행 등

<그림 8>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분포



□ 2009년도 국가별 지구행복지수(HPI) 순위(그림9)

HPI results table

Countries in HPI rank					Countries in HPI rank								
	Sub-region	Life Exp	Life Sat	Footprint	HPI		Sub-region	Life Exp	Life Sat	Footprint	HPI		
2060 target					87.0	8.0	1.7	89.0	2060 target				
1.	Costa Rica	1a	78.5	8.5	2.3	78.1	83.	Turkey	3b	71.4	5.5	2.7	41.7
2.	Dominican Republic	1a	71.5	7.6	1.5	71.8	84.	Hong Kong	6b	81.9	7.2	5.7	41.6
3.	Jamaica	1a	72.2	6.7	1.1	70.1	85.	Azerbaijan	7a	67.1	5.3	2.2	41.2
4.	Guatemala	1a	69.7	7.4	1.5	68.4	86.	Lithuania	7b	72.5	5.8	3.2	40.9
5.	Vietnam	6c	73.7	6.5	1.3	66.5	87.	Djibouti	4b	53.9	5.7	1.5	40.4
6.	Colombia	1b	72.3	7.2	1.8	66.1	88.	Norway	2d	79.8	8.1	6.9	40.4
7.	Cuba	1a	77.7	6.7	1.8	65.7	89.	Canada	2b	80.3	8.0	7.1	39.4
8.	El Salvador	1a	71.3	6.7	1.6	61.5	90.	Hungary	7b	72.9	5.7	3.5	38.9
9.	Brazil	1b	71.7	7.6	2.4	61.0	91.	Kazakhstan	7a	65.9	6.1	3.4	38.5
10.	Honduras	1a	69.4	7.0	1.8	61.0	92.	Czech Republic	7b	75.9	6.9	5.4	38.3
11.	Nicaragua	1a	71.9	7.1	2.0	60.5	93.	Mauritania	4c	63.2	6.0	1.9	38.2
12.	Egypt	3a	70.7	6.7	1.7	60.3	94.	Iceland	2d	81.5	7.8	7.4	38.1
13.	Saudi Arabia	3b	72.2	7.7	2.6	59.7	95.	Ukraine	7c	67.7	6.3	2.7	38.1
14.	Philippines	6c	71.0	5.5	0.9	59.0	96.	Senegal	4c	62.3	4.5	1.4	38.0
15.	Argentina	1b	74.8	7.1	2.5	59.0	97.	Greece	2a	75.9	6.8	6.9	37.8
16.	Indonesia	6c	69.7	5.7	0.9	58.9	98.	Portugal	2a	77.7	5.9	4.4	37.5
17.	Bhutan	5a	64.7	6.1	1.0	58.5	99.	Uruguay	1c	75.9	6.8	6.5	37.2
18.	Panama	1a	75.1	7.8	3.2	57.4	100.	Ghana	4c	59.1	4.7	1.5	37.1
19.	Laos	6c	63.2	6.2	1.1	57.3	101.	Latvia	7b	72.0	5.4	3.5	36.7
20.	China	6a	72.5	6.7	2.1	57.1	102.	Australia	2a	80.9	7.9	7.8	36.6
21.	Morocco	3a	70.4	5.8	1.1	56.8	103.	New Zealand	2a	79.8	7.8	7.7	36.2
22.	Sri Lanka	5a	71.6	6.4	1.0	56.5	104.	Bolivia	7c	68.7	5.8	3.9	36.7
23.	Mexico	1a	75.6	7.7	3.4	56.6	105.	Denmark	2d	77.9	8.1	8.0	36.5
24.	Pakistan	5a	64.6	5.8	0.8	56.6	106.	Mongolia	7a	65.9	5.7	3.5	35.0
25.	Ecuador	1b	74.7	6.4	2.2	55.5	107.	Malawi	4a	46.3	4.4	0.5	34.6
26.	Jordan	3b	71.9	6.0	1.7	54.6	108.	Russia	7c	65.0	5.9	3.7	34.5
27.	Belize	1a	75.9	6.6	2.6	54.5	109.	Chad	4b	50.4	5.4	1.7	34.3
28.	Peru	1b	70.7	5.9	1.8	54.4	110.	Lebanon	3b	71.5	4.7	3.1	33.6
29.	Tunisia	3a	73.5	5.9	1.8	54.3	111.	Macedonia	7b	73.8	5.5	4.6	32.7
30.	Trinidad and Tobago	1a	69.2	6.7	2.1	54.2	112.	Congo	4a	54.0	3.8	0.5	32.4
31.	Bangladesh	5a	63.1	5.3	0.6	54.1	113.	Madagascar	4a	58.4	3.7	1.1	31.8
32.	Moldova	7b	68.4	5.7	1.2	54.1	114.	United States of America	2b	77.9	7.9	9.4	30.7
33.	Malaysia	6c	73.7	6.6	2.4	54.0	115.	Nigeria	4c	48.5	4.8	1.3	30.3
34.	Tajikistan	7a	66.3	5.1	0.7	53.5	116.	Guinea	4c	54.8	4.0	1.3	30.3
35.	India	5a	63.7	5.5	0.9	53.0	117.	Uganda	4b	49.7	4.5	1.4	30.3
36.	Venezuela	1b	73.2	6.9	2.8	52.5	118.	South Africa	4a	50.8	6.0	2.1	29.7
37.	Nepal	5a	62.6	5.3	0.8	51.9	119.	Rwanda	4b	45.2	4.2	0.8	29.8
38.	Syria	3b	73.6	5.9	2.1	51.3	120.	Congo, Dem. Rep. of the	4a	45.8	3.9	0.6	29.0
39.	Burma	5a	60.8	5.9	1.1	51.2	121.	Sudan	4b	57.4	4.5	2.4	28.5
40.	Algeria	3a	71.7	5.8	1.7	51.2	122.	Luxembourg	2c	78.4	7.7	10.2	28.5
41.	Thailand	6c	69.6	6.3	2.1	50.9	123.	United Arab Emirates	3b	78.3	7.2	9.5	28.2
42.	Haiti	1a	66.5	5.3	0.5	49.8	124.	Ethiopia	4b	51.8	4.0	1.4	28.1
43.	Netherlands	2c	79.2	7.7	4.4	50.6	125.	Kenya	4b	52.1	3.7	1.1	27.8
44.	Malta	2a	79.1	7.1	3.8	50.4	126.	Cameroon	4c	49.8	3.9	1.3	27.2
45.	Uzbekistan	7a	66.8	6.0	1.8	50.1	127.	Zambia	4a	40.5	4.3	0.8	27.2
46.	Chile	1b	78.3	6.3	3.0	49.7	128.	Kuwait	3b	77.2	6.7	6.9	27.0
47.	Bolivia	1b	64.7	6.5	2.1	49.3	129.	Niger	4c	55.8	3.8	1.8	26.9
48.	Armenia	7a	71.7	5.9	1.4	48.3	130.	Angola	4a	41.7	4.3	0.9	26.8
49.	Singapore	6b	79.4	7.1	4.2	48.2	131.	Estonia	7b	71.2	5.6	6.4	26.4
50.	Yemen	3b	61.5	5.2	0.9	48.1	132.	Mali	4c	53.1	3.8	1.6	26.8
51.	Germany	2c	79.1	7.2	4.2	48.1	133.	Mozambique	4a	42.8	3.8	0.9	24.6
52.	Switzerland	2c	81.3	7.7	6.9	48.1	134.	Benin	4c	55.4	3.0	1.0	24.8
53.	Sweden	2d	80.5	7.9	5.1	48.0	135.	Togo	4c	52.8	2.8	0.8	23.3
54.	Albania	7b	76.2	6.5	2.2	47.9	136.	Sierra Leone	4c	41.8	3.8	0.8	23.1
55.	Paraguay	1b	71.3	6.9	3.2	47.8	137.	Central African Republic	4a	43.7	4.0	1.6	22.9
56.	Palestine	3b	72.9	5.0	1.5	47.7	138.	Burkina Faso	4c	51.4	3.8	2.0	22.4
57.	Austria	2c	79.4	7.8	6.9	47.7	139.	Burundi	4b	48.5	2.9	0.8	21.8
58.	Serbia	7b	73.6	6.0	2.6	47.6	140.	Namibia	4a	51.6	4.5	3.7	21.7
59.	Finland	2d	78.9	8.0	5.2	47.2	141.	Botswana	4a	48.1	4.7	3.6	20.9
60.	Croatia	7b	75.3	6.4	3.2	47.2	142.	Tanzania	4b	51.0	2.4	1.1	17.8
61.	Kyrgyzstan	7a	65.6	5.0	1.1	47.1	143.	Zimbabwe	4a	40.9	2.8	1.1	16.6
62.	Cyprus	2a	79.0	7.2	4.8	46.2							
63.	Guyana	1a	65.2	6.5	2.6	45.6							
64.	Belgium	2c	78.8	7.6	5.1	45.4							
65.	Bosnia and Herzegovina	7b	74.5	5.9	2.9	45.0							
66.	Slovenia	7b	77.4	7.0	4.5	44.5							
67.	Israel	3b	80.3	7.1	4.8	44.5							
68.	Korea	6b	77.9	6.3	3.7	44.4							
69.	Italy	2a	80.3	6.9	4.8	44.0							
70.	Romania	7b	71.9	5.9	2.9	43.9							
71.	France	2c	80.2	7.1	4.9	43.9							
72.	Georgia	7a	70.7	4.9	1.1	43.6							
73.	Slovakia	7b	74.2	6.1	3.3	43.5							
74.	United Kingdom	2c	79.0	7.4	5.3	43.3							
75.	Japan	6b	82.3	6.8	4.9	43.3							
76.	Spain	2a	80.5	7.6	5.7	43.2							
77.	Poland	7b	75.2	6.5	4.0	42.8							
78.	Ireland	2c	78.4	8.1	6.3	42.6							
79.	Iraq	3b	57.7	5.4	1.3	40.6							
80.	Cambodia	6c	68.0	4.9	0.9	42.3							
81.	Iran	3b	70.2	5.6	2.7	42.1							
82.	Bulgaria	7b	72.7	6.6	2.7	42.0							

HPI colour key:

- All 3 components good
- 2 components good, 1 middling
- 1 component good and 2 middling
- 3 components middling
- Any with 1 component poor
- 2 components poor, or 'blood red' footprint

Sub-region co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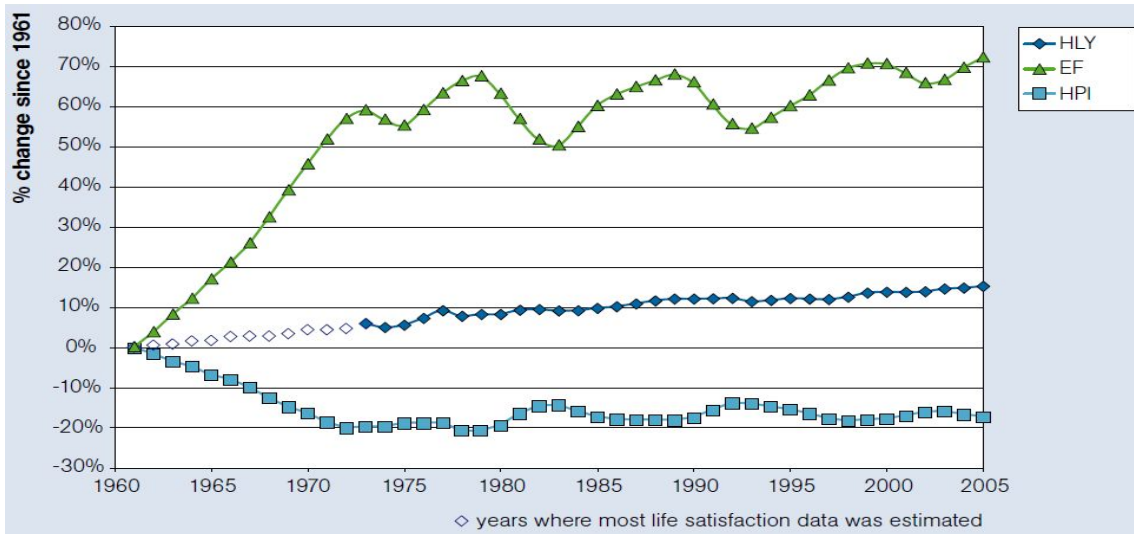
- 1a Central America, Mexico & Caribbean
- 1b South America
- 2a Australia & NZ
- 2b North America
- 2c Western Europe
- 2d Nordic Europe
- 2e Southern Europe
- 3a North Africa
- 3b Middle East / South West Asia
- 4a Southern & Central Africa
- 4b East Africa
- 4c West Africa
- 5a South Asia
- 6a China
- 6b Wealthy East Asia
- 6c South East Asia
- 7a Central Asia & Caucasus
- 7b Central & Eastern Europe
- 7c Russia, Ukraine & Belarus

For colour key of HPI components see Table 1, page 25.

- 한국은 68위(44.4점, 기대수명 77.9세, 삶의 만족도 6.3, 생태발자국 3.7)임
- 1위인 코스타리카는 전력의 99%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하며, 다음은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과테말라, 베트남, 콜롬비아, 쿠바, 엘살바도르, 브라질, 온두라스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은 114위로 생태발자국이 7.9로 높게 나타남
 -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베트남이 5위로 10위권에 들
 - 최하위 국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 지구행복지수(HPI)의 국가별 시계열 비교(1990~2005)
 - 행복지수는 GDP 증가에 비례하지 않음
 - 예를 들면, 중국은 15년간 GDP가 3배나 증가하였으나 행복지수는 오히려 감소

	1990	2000	2005
Latin America	51.6	51.6	58.3
USA	34.2	33.0	30.7
Western Europe	42.1	44.4	45.3
China	68.8	59.1	57.1
India	58.1	44.7	53.0
Japan and Korea	41.9	41.7	43.6
Russia and Eastern Europe	27.3	30.7	37.7
South Africa	28.0	23.1	29.7
Middle East		46.1	49.3
Iraq		53.9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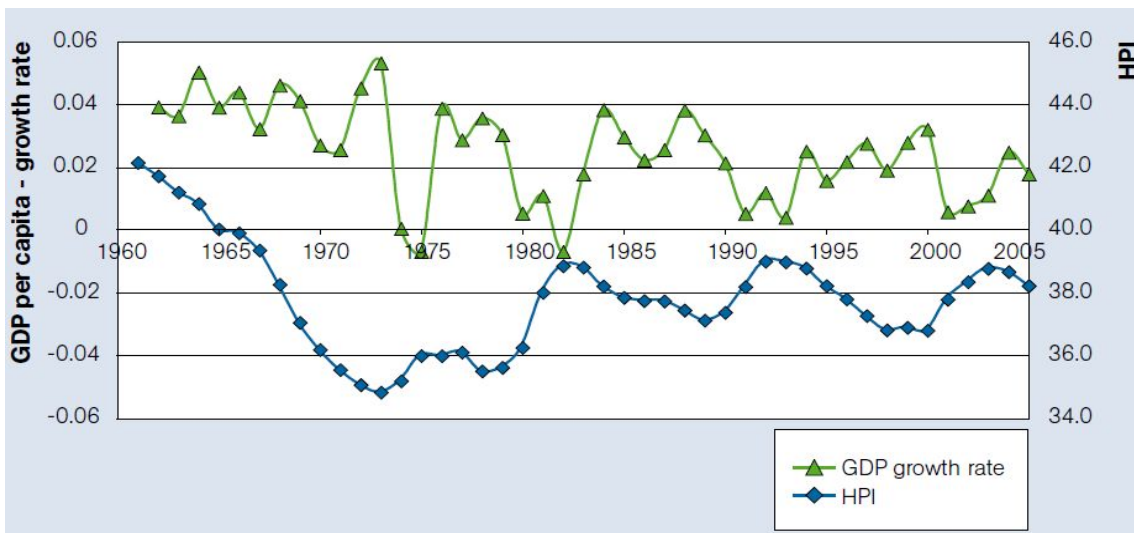
<그림 10> OECD국가의 행복수명(HLY), 생태발자국(EF), 행복지수(HPI) %포인트 추이



※ 행복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태발자국과 행복지수는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 추세

○ OECD국가의 행복지수 및 GDP 증가율 추이(그림 11)

- 경제팽창기인 1965~1975년 OECD국가의 행복지수는 역설적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높은 GDP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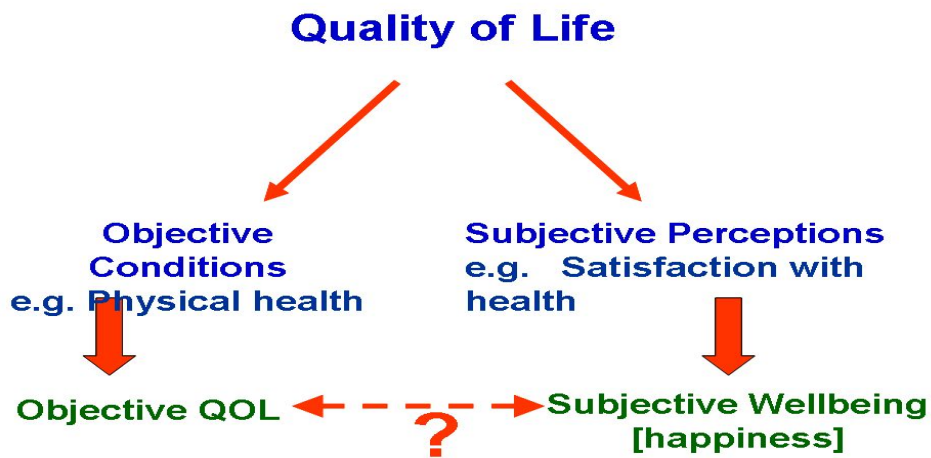
※ 영국의 민간 think-tank인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06년 유럽 20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55개 항목의 제3차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22개 국가의 주관적 웰빙 및 사회 각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웰빙계정(National Account of Well-being)을 처음으로 발표하였음.

3. 개인 웰빙지수 개발 (Robert A. Cummins, ISQOLS학회 회장)

-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질 측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개인 웰빙지수(Personal Wellbing Index)는 8개 변수*로 구성

* 생활수준, 건강, 성취, 관계, 안전성, 공동연계성, 미래안정,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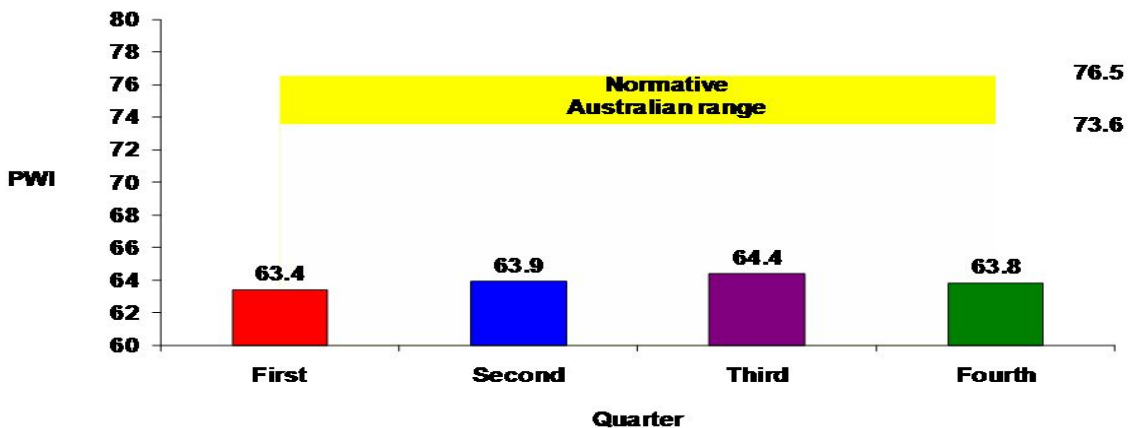
<그림 12>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 국제웰빙그룹(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구축(2001년)

- 국가간 다른 문화 및 언어를 고려한 개인 웰빙지수 비교를 위하여 2001년 5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웰빙그룹을 구축, 국가간 비교

<그림 13> 예: 마카오의 웰빙지수(2007년, 500명 대상)



○ 복합지표의 개발

- GDP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 병행
- 경제적인 성장을 완전 도외시하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면서도 실질적인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복합지표 개발 중에 있음

※ 예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 삶의 질 측정

- 올바른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는 결과(outcome)로서의 웰빙 뿐만 아니라 결정요인(determinants)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필요
- 행복도를 높이는 변수(Bergheim)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투명성, 낮은 실업율, 교육수준, 소득, 고령자 취업율, 낮은 지하경제비율, 경제적 자유, 고용보장, 높은 출산율 등임

4. 삶의 질과 행복의 개념 (Ruut Veenhoven, 에라스무스대 명예교수)

□ '삶의 질'의 4가지 유형(4 qualities of life)

구 분	외부적 관점(External)	내부적 관점(Internal)
기회(Chances)	①환경의 적합성 (Livability of environment)	②개인의 생활능력 (Life-ability of person)
결과(Outcomes)	③삶의 효용성 (Utility of life)	④만족감 (Satisfaction with Life)

○ 기회·결과, 외부적·내부적 관점에 따라 삶의 질을 4가지로 분류

- 기회 또는 결과

·기회 : 좋은 삶을 위한 기회인지?

·결과 : 좋은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결과인지?

- 외부적 또는 내부적 관점

·외부적 관점 : 개인의 삶을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소가 중심

·내부적 관점 : 개인적 요소가 중심

⇒ 행복의 개념 : 결과적 관점에서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한 삶의 만족감(satisfaction with life)을 의미

□ '만족감'의 4가지 유형(4 kinds of satisfaction)

구 분	한시성(Passing)	지속성(Enduring)
삶의 일부 (Part of Life)	①쾌락(Pleasure)	②영역에 대한 만족 (Domain Satisfaction)
삶의 전체 (Life as a whole)	③최상의 경험 (Peak experience)	④삶의 만족감 (Life Satisfaction)

○ 일부·전체, 한시적·지속적 기준에 따라 만족감을 4가지로 분류

⇒ 행복의 개념 : 삶 전체를 관통하여 지속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을 의미

5. '바람직한 사회'로서의 사회발전과 측정의 문제 (지오반니니, OECD통계국장)

□ 사회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통계의 역할 증대

○ OECD를 중심으로 국내총생산으로 대표되는 경제 중심적 성장 논리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사회발전(Societal Progress)의 개념과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진정한 사회발전의 개념화 → 지표로 측정 →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선순환 형성

※ Statistics can work effectively both as an explanatory tool for understanding difficult social progresses and as a means for raising new topical questions

○ 사회지표를 통한 삶의 질 측정

- 객관적 삶의 질 평가가 높다고 해서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반드시 높다고는 볼 수 없음

-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국민소득은 1960년보다 400배나 증대되었으나 자살률은 오히려 2배 증가하였음

- GDP 등 객관적 지표를 배제한 질적인 평가 병행 필요

○ 삶의 질은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결정되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적 자원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동시 고려 필요

* 결정요인 : 개인적 활동, 안전, 사회활동, 제도적 환경, 자연환경, 불평등, 건강, 교육, 정치적 자유, 억압, 소득, 여가, 고용안정성 등

□ **Global Project**의 구성 : 중간 목표

- 경제 : 국가 소득, 국가 부
- 통치 : 인권, 시민과 정치의 약속, 안전, 신뢰, 서비스로 접근
- 문화 : 문화 유산, 예술과 여가
- 자원 관리, 사용, 개발, 보호 : 자원 추출과 소비, 오염, 경제적·환경적 자원의 보전과 보호

□ **Global Project**의 구성 : 최종 목표

- 생태계 조건 : 환경을 위한 결과
 - 토지, 민물, 대양, 바다, 생물의 다양성, 공기
- 인간의 웰빙 : 사람을 위한 결과
 - 육체와 정신 건강, 지식과 이해도, 일과 여가, 물질적 웰빙, 자유와 자기 결정, 대인 관계
 - 세대 내 관점 : 공평 / 불공평
 - 세대 간 관점 : 지속가능성 / 취약성 / 복원성

□ **MDG / GP / CMEPSP** 비교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P (Global Project)	CMEPSP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소득, 빈곤, 고용과 일 건강, 교육 환경적 지속가능성 발전을 위한 협력 양성 평등	물질적 웰빙, 일과 여가 육체와 정신 건강 지식과 이해도 자유, 자기 결정 대인 관계, 생태계 조건 취약성, 불평등, 가난 특수계층	경제적 웰빙 사적 활동, 건강, 교육 정치적 견해와 거버넌스 사회적 관계 환경 위험, 불평등, 가난

□ Global Project 관련 국제사회 동향

- GP Framework 발표 ('09.7월)
- '스티글리츠 위원회' 결과보고서 도출 ('09.9월)
- 유럽집행위 사회발전 측정 관련 권고안 발표 ('09.9월)
-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 ('09.10월)

□ 글로벌프로젝트에 있어 '세계포럼'의 의의

- 세계포럼은 글로벌프로젝트의 시작점이자 위상 강화의 전환점
 - 1차 포럼 : 통계, 지식, 정책의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 교환 시작
 - 2차 포럼 : Istanbul Declaration 채택, 글로벌프로젝트 공식화
- 세계포럼은 글로벌프로젝트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2년 간격으로 개최

6. 주관적 웰빙의 거시요인 (Justina AV Fischer, 호엔하임대 교수)

□ 주관적 웰빙 관련 정부 요인

- 행복의 미시 요인 : 사회적 교제, 건강, 고용
- 행복의 거시 요인 : 경제, 통치구조, 정부활동, 사회

□ 분석 결과

- 주관적 웰빙 평가 점수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보다는 실제 살고 있는 경제와 사회 환경에 의해 주로 설명됨

1. 세계은행 기금활용에 대한 OECD 협의 결과

< 개 요 >

- ◇ 일시/장소 : '09. 7. 23.(목) 09:00 ~ 09:30, 이태리 삶의 질 컨퍼런스 미팅장
- ◇ 참 가 자 : OECD(2명) - 엔리코 지오반니니, Mr. Daniel Byk
통계청(3명) - 하태원사무관, 성기도사무관, 최유미주무관

□ 세계포럼 참석자 대상 글로벌프로젝트 교육 관련

- (OECD) 세계포럼 하루 전인 10.26일(월) 09:30~16:00에 「Turning Yearbook into Progress Book」 주제로 교육 실시하고자 함
 - 교육대상자는 8월초 OECD 공모를 통해 세계포럼 참석자 중 중동 국가를 포함하여 약 30명 선정 예정
- (통계청) 장소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OECD통계위원회 등 3개 특별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시하고자 하며 호텔 측과 협의 중임
 - * Meeting of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Meeting of the OECD 'Co-ordination Group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UNDP Meeting of Human Development Report Focal Points
- (OECD) 강사는 OECD글로벌 프로젝트 담당자인 Mr. Daniel Byk가 담당하며 결과보고서도 OECD에서 작성할 계획임.
- (통계청) 장소임차료는 한국통계청, 점심식사비용은 OECD에서 부담

※ UNDP회의 관련비용은 UNDP측에서 부담

□ 세계은행 기금지원 진행현황

- (OECD) OECD통계국장은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세계은행 지원금과 관련하여, 7월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으나, 현재 세계은행 내부 사정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
 - 만약의 경우 세계은행이 직접 지원금을 관리할 의사도 있음
- (통계청) 한국통계청은 세부사업 추진에 대해 세계은행, OECD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 인사 초청관련

- (OECD)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제3차 OECD세계포럼 참가 지원이 필요한 인사 초청 시 각 인사에게 지급 가능한 예산 범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 (통계청) OECD측이 제안하는 저개발국 인사 명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전달받기를 요청하고, OECD측은 세계은행과 협의가 완료 되는 즉시 발송하여 주기로 함

2. 제3차 OECD 세계포럼 관련 OECD 협의 결과

□ 26일 특별회의 비용

- OECD측 회의장(CSTAT, 조정그룹회의, 단기연수과정) 임대료는 한국통계청이 제공하되, 식·음료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
- UNDP 회의 임대료는 UNDP에서 지불

- **(컨퍼런스 내용)** 동 회의는 각 분야별 교수,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여, 세계 각 지역별, 계층별, 특정집단별 삶의 질과 이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해 폭 넓게 논의 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의 접근으로 정보 공유에 유용하였음
- 다만, 여러 개의 부문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직접 듣는 방법 외에는 관련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자료 습득에 어려움 존재 (on-line과 off-line 모두 자료 제공 안 함)
- **(회의장)** 유명한 고아원 건물을 회의장으로 사용하여 불거리를 제공하였으나,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미설치로 회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불쾌지수가 높았음
- **(등록 절차 미흡)** 유료 등록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기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미 보유로 참가자가 불편함을 느낌
- **(출장 효과)** OECD와 업무협약, 행사 운영 관련 정보 습득, OECD 세계포럼 홍보 등 포럼 개최 준비 및 세계은행 지원사업 협의 등을 위한 좋은 기회였음

※ 제9회 삶의 질 컨퍼런스 웹사이트 <http://www.isqols2009.istitutodeglinnocenti.it/Proposals.htm>

< 참고 > 삶의 질 컨퍼런스 사진

운영본부	스폰서 존 1	스폰서 존 2
		
회의장 1	회의장 2	회의장 3
		
안내 표지판	포스터	사방화
		
OECD 협의	세계포럼 홍보 1	세계포럼 홍보 2
		
오찬	오찬 및 커피브레이크장	커피 브레이크
		